

지역 메아리

완주 무궁화테마식물원 봄꽃 만발

완주 고산문화공원 무궁화테마식물원에 봄꽃이 만발하면서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궁화테마식물원에는 지난해 가을에 식재한 5종 3000본의 풀립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풀립 외에도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명자나무, 수선화, 꽃잔디를 비롯하여 다양한 꽃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꽃을 사진에 담으며, 봄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철쭉과 장미꽃도 개화할 것으로 예상돼 봄나들이를 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행정·복지·교육 전문가  
윤여연행복한 완주 만들어 갈 것”

윤여연 완주군의 원 예비후보는 17일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진정된 일꾼, 행정·복지·교육 전문가 윤여연이 주민과 함께 행복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그간 수많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외 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보며 봉사의 보폭을 넓히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열심히 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사·전주간(남부시장) 시내버스 운행 확대 ▲혁신도시내 치안센터 설립 추진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마을 연계 문화관광자원 개발 ▲효도수당지원 방안 마련 등 13개 공약을 발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아카데미 노병천 박사 강연

제556회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노병천 리더십박사를 초청하여 오는 19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꿈의 법칙 ASK’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꿈의 법칙 ASK(Ask : 구하고, Seek : 방법을 찾고, Knock : 두드려라)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꿈의 이론보다도 단순한 것이며,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 쉽다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용기와 희망과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블랙이글스’ 환상적인 에어쇼

김제지평선축제 축하 위한 공군 특수비행팀 퍼포먼스 선보일 예정

황금달빛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가 지평선 하늘에서 펼쳐지면 임진왜란 당시 비거를 활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김제 출신 정평구 선생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재현될 전망이다.

17일 김제시에 따르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유치를 신청한 결과 타 시·도와의 경합 끝에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성공리에 유치하였으며 2차례의 사전 연습비행과 10월 6일 본 에어쇼를 통하여 지평선축제장 상공을 물려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23분 가량 전체 기동(Full Display) 공연을 펼치고 5분여 가량 저고도 축하비행인 분열비행(Fly-By)을 할 계획이다.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다양한 곡예비행을 통해 조종사들의 조직적 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으로 각종 문화행사나 국제행사 등 행사의 비중이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축하비행지원을 하고 있다.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가 지평선 하늘에서 펼쳐짐에 따라 임진왜란 당시 비거를 활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김제 출신 정평구 선생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재현될 전망이다.

이후엔 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한 우리 지평선축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군 에어쇼를 볼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람이 예상되는 만큼 축하 에어쇼를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편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20대·30대의 흥미와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 보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 민간 머리 맞대

신규조성 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전략회의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17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경제안전국 장실에서 담당부서, 산업단지 사업개발자 등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주농공단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규모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완주군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30개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64만평규모의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1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완주농공단지’가 있다.

김제시보건소, ‘국가 암 조기 검진’ 홍보 주력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줄이고자

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1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완주농공단지’가 있다.

이곳은 주거를 지원하는 미니복합타운, 삼봉지구 웰빙시티와 더불어 산업과 소득, 주거와 삶이 조화롭게 정착된 최적의 투자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말 분양공고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완주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 추진성과의 공유, 투자동

‘국가 암 조기 검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무료 암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향에 대한 분석과 타깃 기업의 설정 방향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특히 인력수급 대책과 선제적 행정 지원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연 경제안전국장은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경제활동진화성 분야) 전국 1위 수상과 더불어 2018년은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다”며 “지속적인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략적 홍보를 통해 2021년 준공 전 분양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하위 50%이하인 자로, 짝수년도이며 본인 부담 없이 무료 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40세이상 남·여, 자궁경부암은 만20세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이상 남·여 모두 대상자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시네마스쿨 운영

오늘부터 교육... 촬영·편집·제작 교육 등

완주군이 관내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시키고, 영화에 관심 있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네마스쿨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완주군이 주관하는 완주군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지역 내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시키고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편집, 제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으며, 1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올해는 장미경 독립영화감독이 지도강사로 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15회에 걸쳐 9월 중순까지 영화·영상 제작 기초과정(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을 공부한다.

완성된 작품은 ‘완주 휴(休)시네마’에서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관객과의 대화’를 열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제작과정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주민시네마스쿨 수강생들에게는 2018 전북사랑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비롯해 2018 전북청소년영화제 등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편의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청소년들의 꿈을 한 뼘 더 키워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여 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작된 작품은 총 8편으로 이 가운데 고산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중2병(2016)’은 제11회 전북청소년영화제 경쟁부문 최선에서 상영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한 ‘2016 중영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출신 효녀가수 현숙 사랑의 쌀 전달

김제시 교월동 출신 효녀가수 현숙씨가 지난 14일 개최된 제9회 교월동민의 날 행사에서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220포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가수 현숙씨는 김제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요즘여자 요즘남자’ 등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물한 뒤 자신의 자신이 있게 해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사랑의 쌀을 기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숙씨는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고향인 김제의 푸근함과 정겨움을 생

각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하다.”며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뭉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고 김제를 널리 알리고 김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우군 교월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와 사랑을 전해주는 현숙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숙씨의 고향 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숙씨가 기증한 사랑의 쌀 220포를 관내 경로당과 그룹홈과 불우한 이웃세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a tobacco cessation campaign. It features a close-up of a hand holding a lit cigarette with smoke rising. The text reads: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Are you still hesitating?). At the bottom, it says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Jeonju Daily Smoking Cessation Campaign).